

## 단기 아동보호시설 연구<sup>1,2)</sup>

- 아동상담소와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mergency Short Term Shelters

이 육<sup>3)</sup>

Rhee, Ock

### ABSTRACT

Institutions included in this study of emergency short term shelters for children in crisis included 2 public counseling centers providing short term protection services for children and 12 emergency shelters for runaway children located in a metropolitan city in Korea. The institutions were examined with respect to their establishment, management, and programs. The researcher visited and interviewed workers employed in the institutions. In additions, 12 children who had been cared for emergency shelters were surveyed with open-ended questions. The data consisted of information on founders, locations, purpose, current management, personnel, length of care, and number and grouping of children. Programs and daily schedules were also examined. Effective models of emergency short term shelters were discussed on the basis of the collected data.

1) 본 연구의 일부는 한국아동학회 1999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2) 이 논문은 1999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3)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 I.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우리 나라의 아동인구는 1970년 1,581만 명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00년에는 1,238만 명으로까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아동인구 비율도 1970년에는 전체인구의 49%를 차지했으나 2000년에는 26%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1996). 그러나 이러한 아동인구의 감소현상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최근 들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3년 이래로 가출아동 발생 수는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은 이후로는 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내용별 정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위탁보호나 입양과 같은 가정보호 사례에 비해 시설보호 사례가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9; 1997, 표 1 참조).

시설보호 아동의 증가현상은 입양이나 위탁보호 등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민간부문의 아동보호사업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공적부문

에서의 적극적인 시설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최근의 기아 또는 가출아동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시설보호 사업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sup>1)</sup>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출아동을 위한 시설보호 사업은 아동들이 위기에 처한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의 이후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사업 가운데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다. 가출로 인하여 아동들은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자칫 이후의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인격형성이나 학습의 결정적 시기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적응을 도와 정상적인 생활로 인도하는 단기간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시설보호 아동들의 발달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들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 학술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요 보호 아동의 발생 시 귀가조치가 불가능하면, 가정입양과 가정위탁보호를 최선

〈표 1〉 요 보호 아동 발생 및 보호 내용

단위: 명

연도	계	요 보호 아동 발생유형				보호내용			
		기아	미혼모 아동	미아	비행가출 부랑아, 기타	시설보호	위탁보호	입양	소년·소녀 가장세대보호, 기타
1993	4,451	1,330	1,904	137	1,080	2,940	943	568	-
1996	4,951	1,276	1,379	189	2,107	3,161	727	479	584
1998	9,292	1,654	4,120	277	3,241	5,112	2,353	1,283	544

자료: 보건복지부(1999; 1997) 보건복지통계연보.

1) 현행 아동복지법 상의 요 보호 아동은 2000년 7월부터 시행될 개정 아동복지법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표기됨.

책으로 삼고 있는 점도 시설보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결과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고전적 연구들은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장기간에 걸친 시설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Rutter, 1979). 반면에 단기 아동보호시설 관련연구들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야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의 경우, 단기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출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90년대에 들어와 비행청소년과 가출아 대상 매춘, 노동착취, 그리고 미혼모 문제 등이 이들에 대한 단기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가출 청소년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청소년쉼터'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이점은 영국, 캐나다, 미국의 경우도 유사하다. 이들 국가에서는 우리 나라보다 앞서 가출 아동과 미혼모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고, 이들을 위한 단기 보호시설(Emergency Short-term Shelter)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최근 영국에서는 1,000명의 아동 당 6명이 가출을 하고 있으며, 장기 보호시설 아동의 30%가 탈출을 하는 현실에서 단기 보호시설인 아동쉼터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Lawrenson, 1997). 또한 미국에서의 가출아동은 150 - 200만 명으로 추산되고(Pearce, 1995) 3년간 44,000명 이상의 가출·부랑아들이 정부지원의 단기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정도이며, 민간단체들에 의해 다양한 단기 아동보호시설이 전 지역에 걸쳐 연립시설(multi-site)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Teare, Perterson, Furst, Authier, Baker, & Daly, 1994). 이에 따라 단기 아동보호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최근 연구들은 단기 보호시설 아동들의 발달특성과 환경특성들을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보고하고 있으며(Christian, 1996; Douglass, 1996; Peasley, 1996; Pearce, 1995), 단기 보호시설의 실태와 프로그램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Douglass, 1996; Pearce, 1995; Caputo, 1994)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나아가 일시 보호시설 아동의 학업을 계속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관련 논의(Rafferty, 1998; Editorials of America, 1997)도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출아동 관련연구가 80년대 이후 자주 시행되었으나 주로 가출현황과 예방대책(박경기, 1998; 이중근, 1993; 문병희, 1992;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가출과 비행의 관계(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박원규, 1980; 육순연, 1979), 가출청소년의 특성(장종욱, 1997; 기백석, 1981; 최선희, 1979)들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들은 가출아동을 위한 사회적 대책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이들을 위한 보호와 지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을 뿐, 단기 보호시설 자체에 관한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 국내의 단기 아동보호시설 관련연구로는 가출 여자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여성개발원(1997)의 연구와 가출 청소년쉼터에 관한 청소년개발원(1998)의 연구가 있는 정도이다. 아동복지법 상 위기의 아동들에게 단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동일시보호시설'은 1999년 현재 11개 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아직 국내에서는 단기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미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단기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미흡함은 현행 아동복지법 상 '아동일시보호시설'이 가출 아동들을 단기간 보호하는 시설로서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을 뿐, 그 동안 공적 부문의 적극적인 관여가 없었던 점에

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영아시설과 육아시설 등의 부분적인 일시 보호서비스로 그 이름이 유지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연합회에 아동일시보호시설로 등록된 시설의 다수가 입양시설 또는 보육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시설들이 단기간의 아동보호 프로그램보다는 입양이나 장기보호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00년 7월부터 시행될 개정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시설 관련조항에는 아동일시보호시설 외에 ‘아동단기보호시설’이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되어 비행, 가출, 부랑아에 대한 단기 보호에 대한 증대된 사회적 관심이 반영돼 있다. 특히 개정 아동복지법 16조 3항에서는 모든 아동복지시설들이 고유업무 외에 6개의 아동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그중 ‘공동생활 가정사업’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명시하였다. 따라서 가출아동들을 위한 단기 보호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보다 구체화되고 단기 보호시설에 대한 아동복지분야의 관심이 크게 증대되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가출아동을 위한 단기 보호시설의 필요성에 비해 단기 보호시설은 물론 관련연구가 일천한 실정에서 그 동안 관심이 소홀했던 단기 아동보호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장차 효과적인 단기 아동보호시설의 설립, 운영 및 프로그램 모형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여기서 단기 아동보호시설이란 가출부랑아

등 위기에 처한 아동에게 단기간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귀가를 도우며 아동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또한 단기간 보호의 의미는 약 5일에서 2주일 정도, 또는 1~3개월까지의 숙식 제공과 적용을 돋기 위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가리킨다.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개정 아동복지법 16조 1항의 아동 일시보호시설과 아동 단기 보호시설, 아동상담소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90년대 이후 가출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 보호와 단기간의 지도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어 온 ‘쉼터’와 공립(시립) 아동상담소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 두 시설 유형은 현재 위기에 처한 아동의 단기간 보호와 귀가를 돋고 아동의 귀가 이후 적응을 돋기 위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시설이다. ‘쉼터’는 대체로 민간 부문의 아동 단기 보호시설이며, 공립 아동상담소는 공적 부문의 단기 보호서비스 시설인 점에서 민간부문과 공적부문의 모형을 대표하는 시설들이다. 또한 쉼터는 본래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단기 보호시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아동상담소는 아동과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아동 단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두 유형의 단기 보호시설을 조사함으로써 운영 측면에서도 다양한 모형들을 탐색할 수 있는 것이다.

## II.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단기 아동보호시설로서의 공립 아동상담소와 청소년쉼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999년 4월, 국내의 공립 아동상담소 관련 편람(청소년대화의광장, 1996)과 청소년 쉼터 관련 자료(여성개발원, 1997;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를 검토한 후 2개 공립 아동상담소와 12개 청소년쉼터를 대상으로 각 시설의 자체 보고서를 통해 일차 현황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각 시설의 실무자 일인 이상의 면접을 통해 각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시설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청취, 수집하였다. 본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조사내용은 현행 단기 아동보호시설의 설

립, 운영 및 프로그램 모형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었으며, 그 구체적 조사내용의 틀은 다음 표 2와 같다.

이밖에 서울 소재 3개 쉼터에서는 시설 종사자의 협조 아래 현재 보호되고 있는 아동 12명을 대상으로 면접질문지를 통하여 아동학 석사 2인이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경험하고 있는 쉼터 생활에 대한 소감과 의견을 수집하였다. 질문지는 쉼터에 오게된 배경,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여부,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보호 아동 설문조사는 1999년 10월에 이루어졌다.

**<표 2> 단기 아동보호시설 연구내용과 자료수집 방법**

연구내용	조사 내용	자료수집 방법
설립모형	설립 주체 설립 목적 시설 소재	시설 방문 및 종사자 면접
운영모형	운영 주체 재정 지원 종사자 보호 대상아동 보호아동 집단 구성 보호기간	시설방문과 종사자 면접, 시설별 자체 보고서
프로그램 모형	보호시설의 운영 프로그램 보호아동의 日課 보호아동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시설방문과 종사자 면접 및 시설별 사업 보고서, 보호아동 설문조사

### III. 단기 보호시설 현황

#### 1. 설립 모형 현황

##### 1) 설립 주체와 설립 목적

아동상담소는 전국에 47개소가 있다(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6). 이 가운데 9개의 공립 아동상담소와 38개의 사립 아동상담소가 운영 중이다. 현재는 대체로 민간 단체와 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상담소가 많은 상태다. 시립 아동상담소는 문제행동아동의 일시 보호치료와 정서 및 발달장애 아동에게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임상적 치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 1999). 이들 상담소의 ‘일시 보호상담’은 ‘거리상담’을 통해 입소한 가출 부랑아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아정체감과 문제해결능력을 갖도록 돋는 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면접에 응한 실무자들은 앞으로 공적 지원을 받는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할 아동상담소가 증설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공적 지원을 받아 아동에게 단기 보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본 연구의 대상 2개 시립 아동상담소의 현황은 표 3과 같다.

서울시립아동상담소는 30년의 역사를 가진

공립 아동상담소로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동부시립아동상담소는 종교재단 위탁운영을 전제로 설립된 아동상담소이다. 각각 공립공영과 공립민영 모형이다.

가출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단기 아동보호시설로서의 청소년쉼터는 초기에는 민간단체나 종교법인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수년 전부터 시립 청소년쉼터가 설립되어 민간단체와 종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많다. 청소년쉼터는 전문적인 단기 아동보호시설이라는 점에서 많은 서비스 가운데 일부 프로그램으로 단기 보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아동상담소와 구분된다. 이들 청소년쉼터는 다양한 이유로 가족을 떠난 아동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쉬게 해주며 숙식을 제공하고 각종 상담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각자의 삶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보호시설이다.

우리 나라의 청소년쉼터는 1992년 국내 최초의 가출 청소년 대상 단기 보호시설인 YMCA 청소년쉼터를 비롯하여 12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정부지원을 받는 곳과 민간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중 공적 지원을 받는 청소년쉼터의 현황을 표 4에 요약하였다.

〈표 3〉 공립 아동상담소 현황

시설명칭	설치 년도	종사자수	보 호 아 동			소재지	운영법인명칭
			정원	현원	수용대상		
서울특별시립 아동상담소	65	42(14)	80	27	여자 9 - 18세	서울 수서구	서울시 직영
동부서울특별시립 아동상담소	88	44(12)	100	98	남자 8 - 18세	서울 동대문구	천주교재단(위탁)

( ) 상담원 수

〈표 4〉 공적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현황

시설명칭	설치 년월	종사 자수	보호아동 활동건수	보호대상/ 수용정원	소재지	운영법인명칭
강남구청소년쉼터	98.1	7명	98/128명 99/37명	남자 (10 - 18세) 15명	서울 강남구	태화종합사회복지관
구로지역청소년쉼터	98.5	11명	연간300명	여자 12 - 20세 30명	서울 금천구	한국청소년연맹
대전시립청소년쉼터	97.1	5명	평균6 - 7명 (중장기보호)	여자 청소년 10 - 15명	대전시	대한성공회나눔의집
부산시립청소년쉼터	96.11	4명	1997년 298명 3 - 8명/일	여자 9 - 24세 15명	부산시	청소년종합상담실
서울YMCA청소년쉼터	92.10	4명	5년간 1800명	여자 13 - 19세 10명	서울 마포구	서울 YMCA
신림지역청소년쉼터	98.5	8명	연간 250명	남자 12 - 20세 20명	서울 관악구	대한성공회
인천시 청소년쉼터	97.4	4명	97년 150명	남녀청소년 10명	인천시	대한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

한편 순수 민간지원 가출 청소년쉼터는 대체로 종교단체에 의하여 설립된 쉼터가 많으며 그 구체적 현황은 표 5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이들 쉼터들은 대체로 여러 지역에 연합 청소년쉼터를 개설해 놓고 단기 보호와 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무자 면접에서는 양측 모두 자신들이 근무

하는 시설의 설립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전문인력의 조달과 프로그램 개발의 융통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바람직한 설립모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시립 청소년쉼터의 위탁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들은 공립 민영시설이, 민간단체와 종교재단의 쉼터에 근무하는

〈표 5〉 민간지원 청소년쉼터 현황

시설명칭	설치 년월	종사 자수	보호활동건수	보호대상 / 수용정원	소재지	운영법인명칭
나눔의집 청소년쉼터	95.5	4명	95 - 98년 51명	13 - 19세 여자청소년 8 - 10명	서울	대한성공회
살례시오 노량진청소년쉼터*	97.6	4명	1년에 30명	여자가출청소년3명	서울	천주교재단
살례시오 영등포청소년쉼터*	97.6	4명	1년에 50명	남자가출청소년20명	서울	천주교재단
새날을 여는 쉼터	98.1	3명	6개월간 20명	여자청소년 6명	서울	감리교 여성회
열린문쉼터	94.11	2명	최근 장기보호로 전환	남녀 청소년 남15녀15	서울	열린문 사회복지센터

\* 살례시오 청소년 쉼터는 15개 지역에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음

상담원들은 민간시설에 대한 공적 지원이 이루 어질 경우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에 의한 쉼터 설립도 쉼터의 양적 증가의 필요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대답하였다. 이들은 현재 단기 보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공립시설들은 의무적으로 아동의 귀가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하므로 문제 가정을 탈출해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입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순수 민간단체에 의한 쉼터에는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상담과 보호를 받으려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단체에 의한 쉼터모형이 효과적으로 아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2) 시설 소재

본 연구에서 조사된 시립 아동상담소는 규모가 비교적 크고 도시 외곽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소년쉼터는 도시의 주택가를 비롯하여 청소년들의 생활권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단기 아동보호시설의 바람직한 소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설 규모가 큰 아동상담소 종사자들은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기보다는 학부모, 교사, 관청에서 의뢰되는 아동이 많으므로 보호시설이 주택가나 청소년들의 출입이 빈번한 도시 중심가에 위치할 필요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가출아동들의 전문적 보호시설이면서 그룹 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시설인 청소년쉼터의 종사자들은 응답자 전원이 청소년들의 출입이 많은 도시의 변화한 곳과 주택가를 단기 보호시설의 위치로 선호하였다.

## 2. 운영모형 현황

### 1) 운영 주체

공립 아동상담소와 공적 지원을 받는 청소년

쉼터 및 민간지원 청소년쉼터의 운영 주체 관련 정보는 각각 앞의 표 3, 표 4, 그리고 표 5에 제시하였다. 아동상담소의 경우, 한 시설은 서울시 직영체제이나 다른 시설은 종교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쉼터의 경우는 예외 없이 민간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 2) 재정적 지원

공적 지원을 받는 아동상담소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으나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청소년쉼터의 경우는 정부보조금, 지방비, 민간단체 또는 종교단체의 자체부담금 및 일반인 후원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민간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는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도 한시적이며 계속적 지원여부는 불투명한 설정이다. 민간시설의 열악한 재정은 인건비 문제로 전문상담자의 이직률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청소년 밀집지역 보다는 비효율적인 장소에 단기 보호시설이 설치되는 주된 이유가 된다.

### 3) 종사자

공적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상담소의 경우, 종사자 수의 규모가 크며 이들의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아동상담소는 각각 42명과 44명의 행정 담당자와 상담원, 각종 교육프로그램 전문가들이 종사하고 있다. 전문 상담원의 수도 12~14명이다(표 3 참조). 이에 비해 청소년쉼터들은 종사자 규모가 적은데, 이는 가출아동 전문보호시설이면서 시설규모가 작고 보호아동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적 지원을 받는 쉼터보다 민간지원 쉼터는 종사자 수가 더욱 적다. 전자는 4~

11명, 후자는 2~4명의 종사자가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표 4와 표 5 참조).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직책을 보면 사회복지사, 레크레이션 지도자, 생활관리인, 가사담당자 등이 있으며 종사자들의 교육수준도 다양한 편이다. 민간지원 쉼터의 경우는 한 사람이 행정과 상담업무를 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 대학생과 일반 자원봉사자가 근무하거나 아예 두 쉼터에서는 상근 자원봉사자가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다.

#### 4) 보호아동

일반적으로 시립 아동상담소의 보호아동들은 경찰서, 행정관서, 학교와 보호자의 의뢰, 자발적 내방, 현장 찾아나서기(outreach) 등으로 입소된다. 경찰서 및 행정관서로부터 공립 아동상담소의 일시 보호시설에 요 보호 아동을 의뢰하는 절차가 가장 공식적인 입소 경로이지만 실제로는 이 경로로 일시 보호되는 아동은 그리 많지 않다(일례로 서울특별시 D구청의 경우 경찰로부터 시립아동상담소 의뢰가 요청된 요 보호 아동은 1998년 5명에 불과하다). 오히려 학교와 보호관찰소, 부모와 친인척 등의 의뢰로 입소하는 아동이 더 많다 서울시립 아동상담소의 경우,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여자 아동으로서 기아, 미아, 가출아동들을 대상으로 약 1개월부터 최장 6개월까지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 약 800명의 아동들에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99년 4월 현재 약 40명의 아동이 단기보호를 받고 있다. 동부시립아동상담소는 8세 이상 18세 미만의 남자 아동을 대상으로 단기간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99년 4월 현재 98명의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다. 이 아동들은 주로 초 중등학교와 보호관찰소의 의뢰로 입소하였거나

경찰서, 서울시 각 구청에서 신고 접수된 기아, 미아 또는 가출부랑아들이 의뢰된 경우이다.

시립 아동상담소들에 비해 청소년쉼터는 보호아동의 수용정원도 10~30명 정도로 적고 실제 보호아동의 수는 이보다 더 적다. 쉼터에는 친구의 소개로 자진 내방하는 경우와 언론 및 홍보자료를 통해서 전화 상담을 거친 후 자진 내방하여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쉼터를 찾는 아동들은 가정폭력, 부모의 방임, 부모의 이혼 등으로 심리적 부적응을 겪으면서 문제 가정을 탈출한 아동들과 비행문제로 학교와 경찰서 등에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된 청소년들이다. 가출청소년의 경우 최근에는 가족관계 뿐 아니라 교우관계, 학교생활 부적응, 진로문제 등으로 가출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약물과 성 문제도 가출 원인이 되고 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취업광고의 영향으로 가출이 늘고 있으며 단순히 자유를 찾아 가출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아동의 연령과 성, 환경적 특성에 따라 입소 경로에 차이가 있는 요 보호 아동들이지만 이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양육환경, 그리고 보다 세심하게 계획된 교육경험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5) 보호아동 집단 구성

본 연구에서 조사한 아동상담소들은 보호가 필요한 남아 또는 여아만을 대상으로 보호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도 12개 시설 중 10개 시설이 남아 또는 여아만을 대상으로 보호하고 있다(표 3, 4, 5 참조). 종사자들은 아동 보호기간 중 불필요한 이성간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동지도에 유익하지만 시설설비와 기숙생활지도 측면에서 동성의 아동보호가 혼성아동의 보호보다 시설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남아와 여아를 모두 보호하고 있는 두 쉼터의 경우도 기숙시설은 남녀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기 아동보호시설은 아동상담소의 경우 생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규모의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는 청소년쉼터들에 비해 집단의 크기가 크다. 그러나 아동상담소도 구체적 프로그램 활동들은 문제상황별, 보호기간별 집단편성에 의하여 소집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 6) 보호기간

본 연구의 대상인 단기 보호시설의 아동들은 대체로 1~3개월간의 단기 보호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시설에 따라서는 아동에게 6개월까지의 중장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본 연구대상 시립 아동상담소들은 12주 까지 보호와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쉼터 아동들의 보호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 까지 보호되고 있다.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귀가' 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호 중 시설로부터 퇴출(무단 퇴소)하는 사례도 있다. 아동상담소는 퇴소 후 통원치료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추후상담을 실시한다. 청소년쉼터들

은 본인이 원하면 원칙적으로 언제나 입퇴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소 후 추후상담 프로그램은 있으나 대부분 1~2회의 전화상담으로 끝나고 있는 실정이다.

### 3. 프로그램 모형 현황

단기 보호시설 운영 프로그램은 아동 단기 보호사업 이외에 조사연구 사업과 홍보사업, 각종 진단검사, 의뢰활동, 자원봉사자 훈련교육, 사후지도 서비스 활동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한 단기 아동보호시설의 프로그램 모형은 시설의 전체 운영프로그램과 보호아동들에 대한 단기 보호 프로그램 모형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 1) 시설 운영 프로그램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립 아동상담소는 문제아동의 보호, 예방,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단기 아동보호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의 일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매우 종

〈표 6〉 공립 아동상담소 전체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체적 활동사례
문제행동 아동상담, 치료*	입소상담, 거리상담, 적응교육
부모 및 가족상담	부모교육, 가족 및 부모상담, 가정방문, 전화상담
정서장애 아동치료	심리치료실, 개별상담치료, 특수아교실 운영
심리검사	지능검사, 적성 및 학력검사, 성격검사실시
생활교육*	학습지도, 시청각교육, 야외학습과 야외수련, 생활관 운영, 특별활동, 생활적응 프로그램, 문예활동
사회교육	일탈, 부적응으로 의뢰된 아동에 대한 전문 교육상담활동(심성계발과 인간관계 교육)
기관홍보	상담원 연구활동, 직원연수 및 자원봉사자 교육실습
추후지도*	전화 면접, 아동 및 부모대상 정기 추후상담활동

\*특히 단기 보호아동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

합적이면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아동상담소의 전체 프로그램 모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반면에 청소년쉼터는 아동에 대한 단기 보호 프로그램을 시설의 가장 중심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련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쉼터와 민간지원 청소년쉼터의 프로그램들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으므로 12개 청소년쉼터의 전체 운영 프로그램을 종합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이들 활동 이외에도 일부 청소년쉼터들은 직접 가출아동 찾아나서기(outreach), 장기 아동보호사업, 자립과 직업알선 활동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표 7〉 청소년쉼터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체적 활동사례
보호서비스	단기/중기/장기 수용보호, 숙식제공, 기본적 편의제공, 의료서비스 의뢰
상담서비스	개별/집단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한 정서적 지지, 거리상담, 각종 심리검사, Hotline서비스, 의뢰상담, 진로상담
교육 및 문화활동	생활계획지도, 견학, 취미지도, 성/약물/가치관 교육, 종교교육, 자원봉사활동, 외출/여가 활동, 문화행사참가
조사 · 연구활동	요보호아동정책 자료개발, 자체서비스 평가보고, 아동·청소년 실태 조사보고
홍보활동	자료집 배포, 간행물 발간, 아동/청소년 선도 관련 각종 캠페인
지역사회활동	부모교육, 자녀지도상담,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 지역사회 봉사활동,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형성, 관계기관과의 연계활동
추후관리활동	통원상담, 부모상담, 학교와의 연계, 가정방문, 위탁기관방문, 전화상담을 통한 추후관리

## 2) 보호아동의 일과

단기 아동보호시설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보호아동들이 직접 시설에서 경험하는 활동 프로그램은 숙식과 편의시설 제공 등의 보호활동과 문제별 상담과 치료활동, 교육 및 문화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8과 표 9에 요약한 단기 보호시설 보호아동의 일과에서 비교되듯이 공립 아동상담소의 ‘일시보호’ 서비스 시설은 단기간 아동에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문적인 생활교육과 개별 및 집단상담에 주력하고 있음에 비해 청소년쉼터는 주로 가출아동을 대상으로 4~5명의 그룹 홈(Group Home) 형태로 생활하면서 단체활

동과 자유시간 등을 통한 정서적 지지활동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표 8에 제시된 아동상담소 보호아동의 일과는 대체로 12주 동안의 입소 보호아동의 일과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과 문제성향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초기 보호아동들은 집단 1과 2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개별상담과 규칙적인 생활지도, 체육활동들을 포함한 활동을 경험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한 보호아동들은 학습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공립 아동상담소의 단기 보호아동의 일과는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유사한 예로 미

## 12 단기 아동보호시설 연구

〈표 8〉 시립 아동상담소 단기 보호아동의 일과

시 간	상담 및 생활지도활동	학습지도
9:00 - 10:00	생활지도	
10:00 - 11:30	집단 1 생활지도 집단 2 집단 상담/개별상담	집단 3 학습지도 (1교시)
11:30 - 13:00	중식	
13:00 - 15:00	집단 1 집단지도 집단 2 생활지도	집단 3 학습지도 (2교시)
15:00 - 15:30	간식	
15:30 - 17:00	집단 1 집단 2 시청각 교육 및 개별상담	집단 3 학습지도 (3교시)
17:00 - 18:00	저녁식사	
18:00 - 9:00am.	생활관(여가, 휴식 및 수면)	

국의 전국에 걸친 연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가 출아동 대상 단기 보호시설인 Children of Night Shelter<sup>2)</sup>의 일과도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보호시설은 오전의 생활상담과 오

〈표 9〉 청소년쉼터 보호아동의 일과

쉼터 시간	K 쉼터 (남자청소년대상)	Y 쉼터 (여자청소년대상)	I 쉼터 (남/여 청소년대상)
07:00 - 08:00	기상, 세면, 조식	기상, 세면, 조식	기상, 조식, 청소, 휴식
08:00 - 09:00	하루 준비	하루준비, 계획	
09:00 - 10:00			
10:00 - 11:00	일주계획, 견학, 예배, 종교 활동, 상담, 체육활동	예배, 상담, 청소, VTR시청, 집단활동	산책, 독서, 심성훈령, 체육 활동
11:00 - 12:00			
12:00 - 13:00	중식	중식	중식
13:00 - 14:00	취미활동/진로상담 체육활동/외출 등	체육활동	자유시간
14:00 - 15:00			
15:00 - 16:00	휴식, 놀이, 여가활동	독서, 생활교육, 문화활동, 성/약물교육	성/약물교육, 음악미술활동, 개별/집단상담, 레크리에이션
16:00 - 17:00			
17:00 - 18:00	학습지도		TV 시청
18:00 - 19:00	석식	석식	
19:00 - 20:00	자유시간, 독서, 간식	학습, 문화프로그램, 명상 시간, 자유시간	석식
20:00 - 21:00			
21:00 - 22:00	청소, 생활회의, 취침	간식, 생활회의, 자기 탐색, 일기쓰기, 취침	자유시간
22:00 - 23:00			일기쓰기, 취침

2) <http://www.childrenofthenight.org/shelter.html> 참조

후의 학습지도를 강조하고 저녁시간에는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 시설은 보호아동들에게 중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도록 교육(G.E.D Classroom Training)하여 단기 보호시설 퇴소 후 정상궤도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점이 국내의 공립 아동상담소의 경우와 다르다.

표 9는 청소년쉼터 가운데 서비스 대상 유형(남아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시설/여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남녀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별로 보호아동의 일과를 제시한 것이다. 아동상담소의 프로그램에 비해, 아동들의 자유 활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외국의 단기 아동보호시설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보다는 아동의 문제별 전문화된 보호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외국의 일시 보호서비스 시설들은 결손가족 아동과, 빈곤아동을 위한 이익대변 활동(advocacy for clients), 의료기관과 약물, 알콜, 성학 대 전문 치료기관에의 의뢰활동, 또는 아동을 위한 법적 조정과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전문화하여 운영되는 추세이다(Adsum House, 1997).

#### 4. 보호아동의 단기 보호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서울시 소재 3개 청소년쉼터의 보호아동 12

명을 대상으로 단기 보호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 결과, 12명 중 11명의 아동들이 쉼터의 보호가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도움이 되는 이유는 안전한 숙식을 제공받는 것(10명), 개인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 것(7명), 비슷한 처지의 동료를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게 된 것(6명)이다. 현재 보호생활에 대해 만족하다고 응답한 아동은 전체 12명 중 10명이었다. 나머지 2명의 불만족 사유는 쉼터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보다는 개인적인 정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보호아동들이 선호하고 유익하다고 느끼는 쉼터의 프로그램은 레크레이션 활동(11명)과 개별상담(9명)이었다. 청소년쉼터 프로그램에 대해 보호아동들이 느끼는 아쉬움은 개별상담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부족함(8명), 장기보호에 대한 보장이 없어 불안하다는 점(6명), 기술을 배우고 싶으나 기회가 부족한 것과 진로상담이 부족한 점(6명),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점(2명), 기타 청소년쉼터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1명) 등이었다. 대체로 아동들은 쉼터의 프로그램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하였으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바라고 있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단기 아동보호시설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동안 연구가 소홀했던 국내의 단기 아동보호시설의 설립, 운영 및 프로그램 모형 현

황을 파악하려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형태의 단기 아동보호서비스 시설 가운데 공적지원으로 단기 아동보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시

립아동상담소와 민간부문에서 시작된 단기 아동보호전문시설인 청소년쉼터를 대상으로 시설 종사자의 면접과 시설의 자체보고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단기 보호시설 보호아동과의 면접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단기 아동보호시설들은 법적, 재정적 지원여건과 운영모형이 다양하였음에도 모든 단기 보호프로그램들은 아동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든 조사 대상 시설들이 단기간의 보호서비스이면서 중요한 치료적 과정으로 계획하여 아동들에게 상담과 생활교육, 추후 관리를 포함한 유용한 경험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 시설들은 보호아동들을 위한 단기간의 보호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상담과 교육을 포함하여 조사연구활동, 홍보활동, 지역사회 활동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여 보호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제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탐색한 국내의 단기 아동보호시설의 설립, 운영 및 프로그램 모형 현황을 기초로 현실적이면서 바람직한 단기 아동보호시설 유형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현행 단기 아동보호서비스 시설의 설립모형 가운데 공적 지원을 받는 공립시설이 순수 민간지원으로 설립, 운영되는 시설에 비해 안정적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과 전문 상담원 고용 측면에서 유리한 모형이다. 공립보호시설도 책임있는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에 의한 위탁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단기 보호가 필요한 가출부랑아의 수에 비해 단기 보호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현행 민간지원 청소년쉼터에 공적 지원이 제공되어 점차 안정적인 단기 보호서비스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시립 아동상담소의 경우를 고려할 때, 아동 단기 보호 전문시설은 아니지만 앞으로 전국에 증설될 아동상담소는 단기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적절하다고 본다. 한편 단기 아동보호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목적에서 설립된 청소년쉼터가 공적 지원이 확실한 아동상담소에 비해 규모가 작고 전문인력 고용 측면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개별상담 등,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절실한 지원시설임이 확실하므로 이들 시설에 대해 공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소그룹 형태의 청소년쉼터 모형이 장려될 필요가 있다.

단기 아동보호시설의 종사자 중 특히 상담원은 보호아동 상담과 지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원은 개별상담과 집단 상담 및 생활지도를 하면서 가정에 대한 뚝넓은 이해를 기초로 아동이 귀가한 후, 적용을 도울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위주의 현행 쉼터 종사자 외에 가정과 아동 문제를 지도, 상담할 수 있는 아동상담사 고용이 단기 아동보호시설에 반드시 필요하다.

단기 보호기간은 본 연구의 자료가 시사하듯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적용에 필요한 3개월 정도이다. 그러나 아동의 문제상황별 보호기간이 융통성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기, 중·장기 아동보호시설과의 연계 활동이 단기 보호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호아동들이 지적하였듯이 단기 아동보호시설의 프로그램에는 개별 아동에 대한 진로상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적용을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진로지도와 학습지도, 나아가 기술지도

활동이 지속되도록 추후상담이 기본 프로그램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 적합하고 바람직한 단기 아동보호시설의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의 단기 보호시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출아동의 양적 증가와 그들의 심리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정도의 연구에서 벗어나 단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대책 연

구가 시급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의 단기 아동보호시설의 현황을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 차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단기 아동보호시설의 유형별 프로그램 모형개발과 프로그램의 평가 연구, 그리고 단기 아동보호시설 상담원의 자격과 교육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단기 아동보호시설의 발전에 실제적으로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기백석(1981). 비행청소년의 가출에 관한 사회정신 의학적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문병희(1997). 청소년 가출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분석적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경기(1998). 청소년 가출현황 및 예방대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8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원규(1980).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의 가출원인 및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태범(1998).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의 역할과 과제. 오늘의 청소년 6월호.

보건복지부(1999). 보건복지통계연보.

(1997).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1999). 동부아동상담소 사업현황.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1999). '99 사업현황. 서울 특별시립아동상담소.

서울 YMCA 청소년쉼터(1997). 서울 YMCA 청소년 쉼터 리포트. 서울 YMCA 청소년쉼터 발행사.

육순연(1979). 가출 청소년의 비행경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이중근(1993). 한국가정환경과 청소년 가출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종욱(1997). 가출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청소년대화의광장(1996). 전국 청소년 상담기관 현황조사 및 편람.

최선희(1979). 가출 청소년과 정상학생의 지각구조의 비교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1996,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아동복지 수용시설 실태 조사 결과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1997). 가출 소녀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1998). 가출 청소년쉼터 운영모델.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청소년 가출의 예방과 대처방안: 가출 청소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Adsum House(1997). An Emergency Shelter for Homeless: Woman & Children, October 20.

Bennett, S.(1995). "No relief but upon the terms of coming into the house"-controlled spaces, invisible disentitlements, and homelessness in an urban shelter system. Yale Law Journal.

- 164(8), 2157-2212.
- Caputo, R. K.(1994). Book reviews-Homeless children and youth: A new American dilemma edited by Julee H. Kryder-Coe, Lester M. Salamon and Janice M. Molnar. Families in Society. 75(4), 252.
- Christian, D.(1996). Who's hiding in your classroom?. Teaching Pre K-8. 27(2), 46.
- Douglass, A.(1996). Rethinking the effects of homelessness on children: Resiliency and competency. Child Welfare. 75(6), 741.
- Editorials of America(1997). Poor children, poor schooling. America. 177(15), 3.
- Lawrenson, F.(1997). Runaway Children: Whose problem?. British Medical Journal. 314, 1064.
- Pearce, K.(1995). Street kids need us too: Special characteristics of homeless youth. Parks & Recreation. 30(12), 16.
- Peasley, R.(1996). Lives turned upside down: Homeless children in their own words and photographs. School Library Journal. 42(12), 130.
- Rafferty, Y.(1997/1998). Meeting the educational needs of homeless children. Educational Leadership. 55(4), 48-52.
- Rutter, M.(1979). Separation experiences: A new look at an old topic. Pediatrics. 95(1), 147-154.
- Teare, J., Peterson, R., Furst, D., Authier, K., Baker, G. & Daly, D.(1994). Treatment implementation in a short-term emergency shelter program. Child Welfare. 73(3), 271.
- Tisdall, E. & Kay M.(1996). Child Welfare-Reviewing the Framework. HMSO.